

『기본적 글쓰기』

김광수, 한국비행문학

2016.

지금까지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쓰기의 요점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요즘 '좋은 글을 쓰는 방법 ○○가지' 유형의 글을 자주 본다. 일부 유용한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좋은 글을 쓰려 하기보다는 나쁜 글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좋은 표현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단기간에 좋은 표현력을 얻고 싶으면 시를 100편 이상 외워라.
3. 10장의 글을 쓰고 싶으면 15장 분량의 준비를 해라. 글은 늘일 때 좋아지기 어렵고 줄일 때 나빠지기 어렵다.
4. 글쓰기 직전 섬광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착상이 있다. 그것은 쓰지 마라. 남들에게도 거의 다 떠오르는 것이다.
5. 글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앉아서 버티지 말고 도서관에 가라.
6. 사적인 신변담은 일반화할 수 있는 생활체험으로 바꿔 써라.
7. 누구나 아는 범상한 내용을 강조하지 마라.
8. 첫 문장부터 끝장 논점으로 진입해라.

9.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첫 문장은 첫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문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첫 문장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10. 되도록이면 문장을 짧게 나눠 써라.

11. 아무리 좋은 표현과 내용이라도 주제와 상관없는 것은 버려라.

12. 상투적인 표현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대부분의 속담과 통용되는 비유는 상투적이다.

13.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한다.

14. 생각이 깊은 글을 쓰고 싶으면 독서와 사색을 병행해야 한다. 이것 역시 생각이 깊은 글을 쓰려 하지 말고 생각이 얕은, 즉 졸렬한 글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15. 좋은 결론을 쓰고 싶으면 본론을 단순히 요약정리만 할 게 아니라, 논점일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시해라.

16. 글을 다 쓴 다음에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퇴고해라. 퇴고하지 않은 글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자기의 벼은 몸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

위에 제시된 준칙들을 거의 다 지킨다고 해도, 언제나 좋은 글을 만들어 내는 경지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글쓰기에는 왕

도가 없다. 중국 송나라 문인 구양수^{歐陽脩}가 말한 ‘3다多’, 즉 다독^{多讀}, 많이 읽기, 다작^{多作}, 많이 쓰기, 다상량^{多商量}, 많이 생각하는 글쓰기에 관한 불변의 철칙이다.

문제는 당신에게 이 ‘3다’를 실행에 옮길 만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는데, 아무리 좋은 교사라고 해도 당신의 글쓰기 실력을 단박에 키워줄 수 있는 이른바 ‘용빼는 재주’ 같은 것은 없다.

바른 마음과 성실한 자세, 날카로운 사물 세계관, 남다른 호기심과 탐구심, 부단히 관찰하고 검증하려는 마음, 남의 것이든 나의 것이든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꾸준히 ‘3다’를 실천하는 일 외에 대안은 없다.

최인훈의 슬픔은 특수한 시대의 것이다. 전자가 보편적 슬픔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슬픔을 말하더라도 보편적 슬픔이면 보편적 슬픔, 사회적 슬픔이면 사회적 슬픔 하나로 주제를 압축한 후에, 그것만으로 일관되는 글을 써야 높은 수준의 명료성과 통일성이 달성된다.

6장

표현의 정확성을 위한 글쓰기

‘표현의 정확성’은 모든 언어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글쓰기에서 이것은 바른 문장, 적절한 어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으로 세분된다. 한국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어렵다. 적절한 어휘 선택능력과 바른 문장의 구사능력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

대책 없는 말 같지만, 많이 써서 많이 고쳐 보는 방법 외에 묘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장론을 가르치는 어느 대학의 교실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정확한 글을 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고 묻자 교수가 되묻기를, “진실로 그 방법을 알고 싶은가?”라고 했다.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교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내 강의를 듣지 말고 집에 가서 글을 써라.”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비문을 경계할 것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비문(틀린 문장)의 노출이다. 한 문단에 비문이 하나 이상만 되어도 문단 전체의 내용 전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2015. 5.12 청와대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 말씀' 중

비문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언어를 즉각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재는 없다. 만약 이런 문장을 구사한다면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자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삽시에 무너뜨린다. 당연히 독자는 신뢰하지 않는 필자의 글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비문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문의 유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문의 유형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부적절한 어휘 선택의 비문
- 필수성분 누락의 비문
- 호응 불일치의 비문

- 동어중복의 비문
- 부당한 주어 공유의 비문

동어중복의 비문 중에는 피동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쓰는 비문이 많이 보인다. 우리가 흔히 듣는 '보여지다'를 살펴보자. 이 단어를 분석하면 보(어간) + 이(피동접사) + 어지(피동접사) + 다(어미)가 된다. 당연히 피동접사가 중복된 비문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비문 몇 개를 더 제시한다.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어진 실력 (검증된)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당해지는 손해가 여간 크지 않았다. (당하는)

내일 아침이면 또 마음이 변해지겠구나. (변하겠구나)

그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읽히는)

또한 지나친 영어 구문식의 표현도 비문이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려 합니다. (두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수많은 익사자가 발생했다. (침몰로 인해서)

적절한 한자어의 사용은 다양한 표현과 압축적인 표현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너무 생경한 한문 투의 문장은 현학적이라기보다는 코믹하게 느껴진다. 굴 한 조각을 '집었다'라고 해야 할 것을,

굴 한 조각을 '나포해 왔다'라고 표현한다면 우습지 않겠는가? 남
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구강 대 구강의 대면'이라고 표현할 사
람은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그녀는 깜짝 놀라 온몸에 털이
솟았다'를, '경악한 그녀는 전신의 융모가 일제히 봉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처럼 극단적인 한문 투의 문장을 쓰는 사람
은 없다. 불요불급한 한자어의 사용은 무조건 자제할수록 좋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어 본 말이다.

글쓰기에서 비문을 안 쓴다는 것은 위낙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
로 지면을 좀 더 들여서라도 흔히 나타나는 비문의 사례들을 더 소
개하기로 한다.

6.25 때 아들을 잃은 후,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달라졌다.

→ 호응 불일치의 비문. '그다지'는 부정어와 결합해야 함. 그러므로 '인
심이 후하지 않던 그녀'로 정정하거나 '그다지'를 빼야 함.

90년대 들어 부쩍 늘어나는 차량은 굳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절 귀향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늘어나는 차량은'과 '확인할 수 있다'의 호응 불일치. '90년대 들어 차
량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은'으로 고쳐야 함.

텔레비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가장 나쁜 영향은 가족 간의 대화

를 단절시킨다.

→ '영향은'과 '단절시킨다'의 호응 불일치. '단절시킨다'를 '단절시키는
것이다'로 고침.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보다는 현재의 괴
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 '보다는'과 '행동에 불과하다'의 호응 불일치. '즐기기 위해서보다는'
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로 고침.

가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적 덕목을 계발
하는 터전이다.

→ 부당한 접속의 비문임. '과와'는 앞뒤 어절을 대등하게 접속시키는
조사임. 부당한 접속의 비문은 '고'나 '며'를 사용하는 정당한 대등 문장
으로 고쳐야 함. '인간성을 함양하고'로 바꿈.

대학은 형성된 심오한 진리 탐구와 치밀한 과학적 정신을 배양하는
도장입니다.

→ 마찬가지로 부당한 접속의 비문임.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치밀한
과학 정신을 배양하는'으로 고침.

철수는 대학입시에 대비해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이론을 열심
이 공부하였다.

→ 마찬가지로 부당한 접속의 비문임. '적당한 운동과'를 '적당한 운동

을 하고'로 고침.

국내에서도 에이즈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어 버린 지 오래 전이며 따라서 에이즈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 '발등의 불이 되어 버린 지'와 '오래 전이며'의 중복, '오래이며'로 고침. 문장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좋음. 뒷부분은 불필요한 어구가 많음. '치부하기 어렵다' 정도로 간결하게 줄임.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령적 언어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이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필수적 성분임. '것은'의 서술어가 없음.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로 고침.

그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우리가 참는 것이 낫겠지요.

→ 외국어 번역 투 문장. '고려에 넣는다면'을 '고려한다면'으로 고침.

우리가 그걸 모두 주선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주선했 예정으로 있습니다'를 '주선했습니다'로 고침.

그 소방관은 생명을 무릅쓰고 불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출하였다.

→ '생명을 무릅쓰고'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죽음을 무릅쓰

고'로 고침.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를 '이해가 안 된다'로 고침.

〈무정〉은 이광수의 작품인데 우리나라 신문학기의 선구자임이 분명하다.

→ 주어의 부당한 공유 비문임. '~작품인데 그는 우리나라 ~'로 고침.

민족성에는 기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두 가지로 성립된다.

→ 조사가 잘못 사용된 비문임. '민족성에는'을 '민족성은'으로 고침.

사람들은 그것이 선수들보다 관중의 책임이 훨씬 큰 사건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 간접 인용문에는 '~라고'가 아니고 '~고'로 써야 함.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에 빠질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한다.

→ 부적절한 어휘 선택의 비문임. '편견'을 '독선'으로 고침.

음식이 식어지기 전에 식사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 '식어지기'를 '식기'로 고침.

창안으로 환한 햇별이 비쳐들었다.

… 열의 개념일 때는 햇별, 빛의 개념일 때는 햇빛. '햇별'이 아니라 '햇빛'으로 고침.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세계는 도처에서 자본주의의 승전고를 울리면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가고 있다.

… 주어 '세계는'이 목적어 '세계를'로 부당하게 전용되었음. '승전고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로 고침.

선배들은 기강을 확립하여, 질서와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목적어의 부당한 공유 비문임. '질서와 위계를' 두 개가 같은 서술어의 목적어가 될 수 없음. '질서와 위계를'을 '질서를 바로잡고 위계를 분명히 해야'로 고침.

아버님, 할아버지께서 내일 시골로 내려오시랍니다.

… 높임법 오류의 비문임. 제1높임(할아버지) 앞에서는 제2높임(아버지)을 높여서는 안 됨. '내려오라십니다'로 고침.

웃어른의 말씀이 계실 때에는 모름지기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 직접높임(계시다, 모시다, 주무시다, 잡숫다 등)과 간접높임의 문제. '말씀'은 간접높임으로 해야 함. '계실'을 '있으실'로 고침.

아빠는 출장 가셨고 엄마는 설거지하신다.

… 부당한 대등의 비문임. '~고'와 '~며'는 대등적 연결어미. 출장과 설거지는 의미의 격이 대등되지 않음. 두 문장으로 따로 써야 함.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로 고침.

나의 사상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 '밖으로'와 '표출(밖으로나옴)'은 의미가 중복됨. '밖으로'를 제거.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녀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애매어의 비문임. 사람이 많은 도시인지, 많은 도시를 다닌다는 뜻인지 모호. 침표를 쓰든지 어휘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 등으로 고침.

고유어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유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그들은 '고유어(固有語)'도 한자어니까 '토박이말'로 쓰자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어는 유연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유치장까지 따라온 나의 주인 김 씨 아저씨에게 내가 처한 정황을 옥현이에게 전하라는 부탁만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14장

논리적 오류 익히기

글 쓸 때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 36'

내가 시저를 쓰러뜨린 것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시저 혼자 살고 만인은 다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시저의 사랑에는 눈물이, 행운에는 기쁨이, 용기에는 존경이, 그러나 야심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요. 이 중에 누구 노예 되기를 원하는 비열한 사람이 있소?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자, 로마시민이 되기를 싫어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소?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나약한 자가 있소?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자,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소.

이 글은 셰익스피어 작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하고 난 후 로마시민들에게 행한 연설문이다. 이 연설을 들은 로마시민들은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외친다. 그런데 잠시 후 안토니우스가 나타나 또 하나의 연설을 한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쏟아야 할 때요. 여러분은 모두 이 외투를 아실 겁니다. 나는 기억하오, 시저가 처음 이 외투를 입었던 날을. 여름날 저녁 그의 막사에서였소. 너어비 족에 승리했던 그 날. 보시오! 여기를 케시어스의 단검이 찔렸소. 보시오! 이 틈은 가증할 캐스카가 낸 칼자국이오... 로마시민 여러분! 이제 나나 여러분이 나 모두 다 쓰러진 것이오.

조금 전 브루투스는 무죄라고 했던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듣고 흥분하여 “시저를 죽인 반역도를 한 놈도 살려주지 마라.”라고 복수를 외치게 된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무죄든지 유죄든지 양자 중 하나라야 한다. 무죄이면서 동시에 유죄일 수는 없다. 그런데 로마시민들은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는 무죄라고 했고,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듣고는 유죄라고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브루투스가 제시하는 이유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가 무죄라는 결론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안토니우스가 제시하는 이유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브루투스가 유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로마시민들의 추론은 부당한 것이었다. 논리학에서는 이런 오류의 추론을 ‘균중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한다. 인생은 짧고 오류는 길다. 로마의 술한 영웅과 협객과 시민은 지금은 다 가고 없지만 이렇게 오류는 남아 있는 것이다.¹⁾

논리적 오류는 부당한 추론을 말한다. 그런데 부당한 추론이라고 해서 다 오류는 아니다. 한없이 많은 부당한 추론 중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유형 별로 일반화하여 따로 논리적 오류라고 규정한 것이다. 논리적 오류는 부당하면서도 그 부당성을 교묘히 위장하는 추론이다. 그러므로 얼핏 보아 그럴듯해서 만만치 않은 호소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당신은 언제라도 스스로 오류를 범하거나 타인의 오류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논리학에서 오류로 파악하여 명칭을 붙여 놓은 유형들을 익혀 놓으면 거의 해결된다. 지금까지 규정된 오류는 거의 50개에 이른다. 이것을 명칭과 함께 해당 예문을 숙지하면 해결된다. 단 이 책은 논리학 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 오류 중 실제 글쓰기에 필요한 것 36개를 추려서 소개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논리적 오류는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윤리나 도덕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무식하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은 아니다.

브루투스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낸 논거들은 오류였

1)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철학과현실사, 2007)을 참조하여 재인용했다.

다. 오류이므로 무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논거가 아니었다. 브루투스는 자기가 무죄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중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로마시민들이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브루투스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이럴 경우 브루투스가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정작 오류를 범한 것은 브루투스가 아니라 로마시민들이다. 이것은 브루투스 다음에 연설한 안토니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가들은 시민들이 군중심리에 호소하는 방식에 곧잘 설득 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결국 로마시민들은 두 정치가에게 차례로 기만당한 것이다.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오류임을 알고 하는 경우와 오류임을 모르고 하는 경우이다. 오류임을 알고 하는 경우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류임을 모르고 하는 경우는 오류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무튼 오류를 범하는 것은 기만 아니면 무지, 둘 중 하나에 속한다.

당신은 왜 오류를 익혀야 하는가? 먼저 스스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타인의 오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나 기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 오류를 익혀 놓으면 글쓰기뿐 아니라 대화나 토론 등에도 매우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논리적 오류에는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분류법은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글쓰기에 적용되는 데 요긴한 논리적 오류의 종류와 원리 그리고 예문을 무순위로 소개한다.

1. 순환논점의 오류
2. 자기당착의 오류
3. 전건부정의 오류
4. 후건긍정의 오류
5. 선지긍정의 오류
6. 피장파장의 오류
7. 원천봉쇄의 오류
8.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9. 연민에의 호소
10. 공포에의 호소
11. 증오에의 호소
12. 성적 쾌락 또는 로맨스에의 호소
13. 유머에의 호소
14. 군중심리에의 호소
15. 다수에의 호소
16. 인신공격의 오류
17. 사적관계에의 호소
18. 아침에의 호소
19. 성급한 일반화
20. 합성/분할의 오류
21. 근시안적 귀납
22. 잘못된 유비추리
23. 도박사의 오류
24. 역반증의 오류
25. 우연의 오류
26. 원칙혼동의 오류
27. 의도확대의 오류
28. 원인오관의 오류
29. 발생학적 오류
30. 흑백논리의 오류
31.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32. 수레를 말 앞에 놓기
33. 목욕물 버리며 아기까지 버리기
34. 자의적인 재정의의 오류
35.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
36. 가설과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

1. 순환논점의 오류_ 추론에는 근거와 결론이 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거는 없이 교묘하게 표현을 바꾸어 결론만 반복하기 때문에 논점이 순환한다고 하여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다.

질문 : 당신은 왜 선거에서 패했나요?

답변 : (내가 선거에서 패한 것은) 그야, 충분히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위 대화에서 답변자의 논리는 '충분히 표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선거에서 패한 것이다.'가 된다. 하나는 근거, 하나는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두 명제의 뜻은 같다. 표현을 바꾸어 반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근거가 없는 추론이다. 이 오류는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왜? 나는 매력적이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

임금 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이다.

조금 달라 보이지만 이 논증 역시 순환논증의 오류이다. 임금 피크제가 나쁘다는 결론을 근거 없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거를 대지 않은 추론은 모두 순환논점의 오류에 포함된다.

2. 자기당착의 오류_ 자기당착(自家撞着)이란 앞뒤가 모순된다는

뜻이다.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 유쾌하다고 한다면 모순이다. 이런 뻔한 잘못을 누가 범할까 싶지만 이 오류는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 특히 기자나 지식인이 쓰는 신문 칼럼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앞에서는 어떤 대상을 실컷 비난해 놓고 마지막쯤 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순 아닌가? 당신이 대화 중에 "너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리이러한'이 나쁜 뜻을 담고 있다면 이것 역시 자기당착의 오류가 된다.

3. 전건부정의 오류_ 앞에서 우리는 잠시 가언삼단논법을 보았다.

비가 오면(전건) 땅이 젖는다.(후건)

그런데 비가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이것은 정당한 추론임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다음처럼 전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땅이 젖지 않았다.

전건을 부정하고 이에 따라 후건도 부정했는데 이것은 부당한 추론으로서 전건부정의 오류이다.

4. 후건긍정의 오류_ 가언삼단논법은 전건을 먼저 긍정해야지 후건을 먼저 긍정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런데 땅이 젖었다.

그러므로 비가 온 것이다.

이것 역시 부당한 추론이다. 땅이 젖었다고 해서 다 비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땅은 다른 이유로도 젖을 수가 있다. 이처럼 전제가 결론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추론은 모두 오류로 간주된다.

5. 선지긍정의 오류_ 앞에서 우리는 선언삼단논법도 본 적이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원내대표이거나 사무총장이다.

그런데 성명서는 원내대표가 발표했다.

그러므로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사무총장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한 추론이다. 그런데 만약 다음 추론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사회주의자거나(P) 기독교 신자다.(Q)

그는 사회주의자다.(P)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Q)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한 추론이다.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자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추론은 앞의 추론과 무엇이 달라서 부당한 추론이 되는 것일까?

우리말 '~거나' 또는 영어 or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P가 아니면 Q'가 되는 배타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P일 수도 있는 동시에 Q'가 될 수도 있는 포괄적 의미이다. 그런데 선언삼단논법은 배타적 의미일 때만 성립된다. 포괄적 의미일 때는 선지긍정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녀를 유혹한 사내는 미남이든지 두뇌가 우수할 것이다.

그녀를 유혹한 사내는 미남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유혹한 사내는 두뇌가 우수하지 않다.

이 추론 역시 앞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선지긍정의 오류가 된다.

6. 피장파장의 오류_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대하여 너도 잘못이 있으니 너의 말은 부당하다고 역공격하는 오류로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물타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7. 원천봉쇄의 오류_ 자기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오류이다. '우물에 독 뿌리기'라고도 한다.

내가 인간은 모두 타락했다고 할 때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타락한 인간이다.

8.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_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근거로 자기주장을 펼치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를 떼면 유명인이나 권력자 등의 말에 기대어 자기주장을 한다면 이 오류가 발생한다. 아래 예문에서 철학자는 천동설을 증명하는 데는 부적합한 권위자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두 이론이 다 같이 관찰되는 현상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들은 어리석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지구가 삼중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철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와 같은 단순한 대상은 단일한 운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논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주장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 심리적 요소는 연민, 공포, 증오, 즐거움 등을 망라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

9. 연민에의 호소_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논증하지 않고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오류이다. 이뿐 아니라 심리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논점일탈의 오류에 속한다.

재판관님, 피고에게 징역형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습니다. 징역형은 의지할 데 없는 가족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고를 훈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0. 공포에의 호소_ 논증 대신 공포, 위협, 협박, 근심, 불안심리 등에 호소하는 논점일탈의 오류이다. 어린아이에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라고 겁을 주거나 강도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라고 위협하는 따위의 오류이다.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닥쳐올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면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에게 “칼 가지고 장난하면 다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실제 칼을 가지고 장난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1. 증오에의 호소_ 증오나 분노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킨다. 논증하려 하지 않고 이런 감정에 호소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중에서

노동자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뿐이라는 말은, 그동안 모든 것을 착취당한 채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뜻과 같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증오심을 유발한다.

12. 성적 쾌락 또는 로맨스에의 호소_ “미인들은 모두 이 차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여인을 당신 옆에 태워 보십시오.” 이 문장은 자동차에 대해 논증하는 대신 이 자동차를 몰면 미인을 태우기가 쉽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적 쾌락 또는 로맨스적인 상상을 자극한다.

13. 유머에의 호소_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하지만 자기를 즐겁게 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진화론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일이 있다. 헉슬리는 찰스 다윈의 친구로서 진화론자였고, 윌버포스는 성직자답게 창조론자였다. 윌버포스가 진화론자 헉슬리에게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나요, 아니면 할머니한테 들었나요?”라고 말하자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이 훌륭했다고 말하는 법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했다니? 그래서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농담이 위트와 기지를 담을 때 즐거움을 선사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오류에 속한다.

이 밖에 논점을 벗어나 무언가에 호소하는 오류로는 14. 군중심리에의 호소가 있다. 이것은 타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군중의 감정이나 열광적 심리를 이용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오류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로 15. 다수예의 호소가 있다. ‘베스트셀러가 베스트 북’이라는 판단 같은 것이다. ‘다수결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도 이 오류에 속한다.

16. 인신공격의 오류는 어떤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직업 등을 트집 잡아 비판하는 오류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로 ‘정황에의 호소’가 있다. 이것은 직업, 직위, 처지,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는 오류이다. “사형 당한 사람의 말은 정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인신공격의 오류가 되고 “그는 야당 의원 아닌가? 야당 의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정황에의 호소가 된다. 17. 사적관계에의 호소, 18. 아침에의 호소 등도 논점일탈의 오류에 속한다. 앞에서 논증 대신 무언가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논점일탈의 오류라고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른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치자.

만취 상태는 정신 이상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무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제 하루바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 범죄를 저지른 피고를 변호하다 말고 갑자기 알코올 중독으로 논점을 옮겨가 버렸다. 그럴 때에는 오류의 명칭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일반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알코올에의 호소'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즉 논점일탈의 오류는 논점일탈 상황을 일반화하여 지칭할 수 있을 때 따로 명칭이 부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명칭 없는 논점일탈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만약 논점일탈이 발생하면 글의 중요한 요건인 '주제의 명료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심리적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오류는 심리에 의한 그릇된 판단으로 빚어지는 오류인 데 비해, 자료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빚어지는 자료적 오류도 있다. 자료적 오류는 지적^知적인 장애에 의한 오류이다.

19. 성급한 일반화 이 오류는 가장 흔히 나타난다. 일반화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례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한두 번 지각했다고 해서 그를 지각쟁이라고 한다든지, ○○ 지역 사람 몇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 지역 사람은 모두 잔인하다고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

20. 합성/분할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합성의 오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의 부분들이 가지는 속성을 그 사물 자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오류이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품들은 거의 다 가볍다. 그러나 부품이 가볍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벼울 리는 없다. 이처럼 합성되었을 때의 변화를 무시하면 이 오류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자동차가 무겁다고 해서 부품들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한다면 분할의 오류가 발생한다.

필벽의 소설 《대지》에는 가공할 메뚜기 떼 이야기가 나온다. 메뚜기 떼가 한 번 훑고 지나가면 가축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메뚜기 한 마리는 전혀 무섭지 않다. 메뚜기 한 마리가 무섭지 않다고 해서 메뚜기 떼도 별 거 아니라고 지레 판단을 내린다면 합성의 오류가 되고, 반대로 메뚜기 떼가 무섭다고 해서 메뚜기 몇 마리가 나타났을 때 공포에 질린다면 분할의 오류가 된다.

21. 근시안적 귀납 귀납은 실험, 관찰, 조사 등에 의해 결론짓는 추론 방법이다. 그런데 실험, 관찰, 조사 등이 부실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예컨대 계절마다 줄

자로 다리의 길이를 재었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리의 길이가 다르지 않았다. 결과 다리 같은 물체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팽창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면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다리를 측정한 줄자도 온도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측정이 같았던 것이다.

22. 잘못된 유비추리_ 두 사물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일반화하려면 비교되는 두 사물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유관한 것이라야 한다. 이런 비교를 유비추리라고 한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공통적 속성으로 비교한다면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천재 아인슈타인은 건망증이 심했는데 자기도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서 자기를 천재로 간주한다면 이 오류가 발생한다.

23. 도박사의 오류_ 도박사들이 포커를 할 때 이 오류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도박사들은 이미 패가 많이 오픈된 무늬의 카드는 더 나올 확률이 적다고 보고 자기 카드 패를 수정한다. 이것은 카드가 무늬 별로 총 숫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동전 던지기나 출산처럼 총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 매번 독립적인 사건일 경우 뒤의 사건은 앞의 사건에 영향 받지 않는다. 동전 던지기에서 5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6번째는 뒷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든지, 아들을 연속 셋 출산했다고 해서 네 번째 아기는 딸일 거라고 판단한

다면 이 오류가 발생한다.

24. 역반증의 오류_ 어떤 주장의 반대가 되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참이라고 하는 오류이다. 원래 '무엇이 있는 것'이나 '무엇이 그렇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무엇이 없는 것' 또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 중복이지? 중복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봐.”라고 한다든지, “아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라고 추론하면 역반증의 오류가 된다. 사실 이 오류는 황당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무고한 사람에게 “너, 내 돈 훔쳐갔지? 안 훔쳐갔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이런 억지 논리를 한국의 정치나 언론에서는 즐겨 이용한다.

조선 성종 때 관리 최부가 중국에 표류하여 갔을 때, 명나라 관헌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명나라 관리가 최부를 왜구로 의심하여 최부가 보여 준 조선 관리 증명서가 가짜가 아니냐고 다그친다. 이에 최부는 명나라 관리에게 당신의 명나라 관리 신분증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유학자 최부는 이런 논리적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25. 우연의 오류_ 물은 섭씨 100도에 끓는다. 그러나 고지대에서는 기압 때문에 100도 전에 끓기도 한다. 높은 산에서 100도

이전에 물이 끓었다고 해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이것은 우연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26. 원칙혼동의 오류_ 원칙에는 큰 원칙과 작은 원칙이 있다. 두
원칙이 충돌할 때는 큰 원칙부터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회칼을 맡겼는데, 어느 날 밤 피를 흘리며 나타
나 회칼을 달라고 한다. 쥐야 하는지 안 쥐야 하는지? 맡은 물건
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작은 원칙이고, 위험한 물건을 위험한 사
람에게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은 큰 원칙이다. 그러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원칙을 혼동
하는 것이 된다.

27. 의도확대의 오류_ 타인의 의도를 확대 해석하여 판단하는
오류이다. “너 또 담배 피는 것 보니 죽고 싶은 게로구나.”라고
한다든지, 공부 안 하고 놀다 온 아이에게 “너 대학 가고 싶지 않
은 거구나.”라고 말한다면 의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다. 죽
고 싶어서 담배 피는 사람 없고 대학에 떨어지고 싶어서 노는
아이 없다.

28. 원인오판의 오류_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런
데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상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선후관계가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다. “학교에 가는

데 버스가 한꺼번에 두 대가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을 망칠 징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선후관
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한 원인오판의 오류이다.

29. 발생학적 오류_ 가야를 병합한 신라 진흥왕이 가야 음악을
높이 평가하면서 음악가 우륵을 영입했다. 이에 신하들이 “망한
나라의 음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발생학적 오류에 해당된다.

30. 흑백논리의 오류_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극단적인
두 경우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론이 흑백논리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사랑하지 않으면 곧 미워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든
지, 물이 뜨겁지 않으면 곧 차갑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흑백
논리의 오류는 중간 단계가 있는 반대관계를 상호 배타성을 가
지는 모순관계로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31.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_ 허술하지 않은 상대의 주장을 허술
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오류이다. 이것은 반박을 할
때 상대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진
화론을 논박할 때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한 것이 진화론이라
는데, 이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원숭이
와 인간의 중간적 동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원간’이나 ‘인
숭이’?) 그러나 이런 중간적 동물은 없었다. 따라서 진화론은 허

구이다.”라고 말한다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된다. 진화론은 ‘원숭이가 인간 됐다’ 식의 허술한 논리가 결코 아니다. 진화론을 담은 책《종의 기원》은 대단히 탄탄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32. 수레를 말 앞에 놓기_ 어떤 일의 원인이 되려면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중의 일이 먼저 일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조광조는 사형 당한 유학자다. 그러니까 그의 학문은 도덕적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는 인신공격의 오류가 들어 있다. 동시에 이런 주장은 선후관계를 오관하는 ‘수레를 말 앞에 놓기’ 오류이기도 하다. 조광조의 학문은 생시에 이룩된 것이고 사형 당한 것은 나중의 일이다. 나중의 것인 사형을 원인 삼아 먼저 있었던 그의 학문을 재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33. 목욕물 버리며 아기까지 버리기_ 재미나는 명칭이다. 여기에 서 목욕물은 작은 가치이고 아기는 큰 가치이다. 어떤 논증에 작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논증 전체의 정당성까지 함부로 부인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불쌍한 사람에게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부도덕합니다.

이 논증에는 ‘연민에의 호소’라는 오류가 들어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 논증 전체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면 더 큰 오류가 발생한다.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장에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34. 자의적인 재정의의 오류_ 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특정 언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무리하게 주장을 펼치는 오류이다.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남을 돕다니. 요즘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을 도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자의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다. 물론 이런 정의는 터무니없이 부당하다.

35.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_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살아남는 것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새로운 정의로 존재를 강요한 오류이다. 흔히 멋지고 개성적인 표현에 집착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36. 가설과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_ 로맹 가리 Romain Gary, 1914 ~ 1980 라는 소설가가 있다. 리투아니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유대계 프랑스인이다. 그는 한 작가에게 단 한 번만 주는 콩쿠르 상을

두 번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젊어서 프랑스 문단의 총아로 떠오른 그는 42세에 콩쿠르 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로맹가리는 늙어가면서 비평가들이 자기 소설을 외면하자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소설 《자기 앞의 생》을 발표하여 60이 넘는 나이에 또다시 콩쿠르 상 수상자가 된다. 그의 인상 깊은 단편소설집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설이 아니라 단편집 속에 수록된 다른 작품 〈벽〉이다. 한 여인을 극도로 선망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젊은이는 여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여행을 떠난 여인이 모텔에 들자 젊은이는 여인의 옆방을 잡아 투숙한다. 벽을 사이에 두고 아름다운 여인의 숨결이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밤이 들어 여인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츰 격렬해지는 신음소리, 젊은이는 모텔 방에서 내는 여인의 신음이 무엇인지쯤은 알 만한 나이였다. 동시에 그것은 젊은이를 극한으로 절망시켰다. 그것은 '순결한 나의 여인'이 내서는 절대 안 되는 소리였다. 그래서 젊은이는 분연히 자살해 버렸다.

얼마 후 옆방의 여인도 죽어 있었다. 알고 보니 여인은 극심한 고독과 권태를 이기지 못해 여행 중에 비소를 마시고 자살한 것이었다. 물론 간밤의 신음소리는 독약이 만들어 준 처절한 고통의 소리였다.

여인의 신음소리가 무조건 쾌락의 소리라는 판단은 사실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가설이다. 젊은이는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이

는, 즉 '가설과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¹

살아 있는 텍스트로 논리적 오류 익히기

얼마 전 나는 페이스북에서 어느 변호사와 댓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이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여기에는 철학자 이병창 교수의 글도 개입되었다. 마침 논리적 오류를 실천적으로 익힐 수 있는 생동하는 텍스트라고 생각되어 제시하기로 한다.

나는 페이스북에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면서 이복을 끌어들이 조롱, 풍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 반대 안 해도 좋으니 동족 희롱하지 마라 ——

연세대학에 이어 고려대학 등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면서 이복식 어휘·어조를 패러디한 글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생각 없이 환호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매체는 이것을 뭉치기발한 착상인 양 보도했다.

나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면서도 별이는 이런 일들이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방식의 원조는 이른바 '중복물이'를 곧잘 하

¹ 지금까지 거론한 논리적 오류는 논리학자 김광수 교수의 역저 《논리와 비판적 사고》(철학과 현실사, 2002)의 오류분석 장(p379~465)을 대폭 참조했음을 밝힌다. 오류는 물론 논리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